

니체의 카오스 철학

—인간의 창조성 개념을 중심으로—

강용수*

주제분류 사회철학, 존재론, 윤리학, 미학

주요어 카오스, 창조성, 예술, 우주론, 존재론

요약문

니체의 카오스에 대한 비판은 그의 철학적 관심인 우주론, 존재론, 인식론, 미학, 사회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카오스는 그 자체로 부정성을 함축하지만, 새로운 인간을 창출하기 위한 형성력의 전제로서 요청된다. 이 글은 니체의 카오스 개념을 창조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연구하기 위해 그것의 기술적(記述的)인 측면과 규범적인 의미를 구별하면서 카오스의 극복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카오스는 니체의 우주와 인간에 대한 역동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단서로서 ‘신의 죽음’으로 야기된 존재의 탈신화화, 탈인간화를 넘어 생성의 무목적성을 미학의 차원에서 새롭게 열어 보이면서 무한한 생성을 통해 자기완성을 구현하는 철학적 긍정개념이다. 전통철학이 카오스에 대한 혐오 때문에 자신의 내면세계를 도식화, 단순화하여 그러한 혼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니체의 카오스 철학은 기존의 생성과 존재, 다수와 일자로 각인된 형이상학과 윤리학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철학적 사유를 영원회귀의 필연성으로 확장함으로써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의 자기완성, 자기창조의 과제를 ‘삶의 기예’(Lebenskunst)라는 미학적 의미에서 역동적으로 제시한다.

* 고려대학교

1. 들어가는 말

전통철학에서 일반적으로 카오스는 코스모스와 대립되는 부정적인 속성으로 이해되면서 소홀히 다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논자는 인간에 대한 니체의 역동적 세계관을 카오스의 개념을 중심으로 다층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원래 카오스는 19세기 과학과 수학분야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그 당시 지배적인 이념인 낙관주의에 바탕을 두었다. 프랑스 수학자인 푸앵카레(H. Poincaré)가 19세기 말 확실한 예언을 통해 모든 상황을 미리 맞출 수 있다는 인간적 결정론의 패러다임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고 벨기에 수학자 베르휠스트(F. Verhulst)의 카오스이론을 받아들인 기상학자 로렌츠(E. Lorenz)는 물리학의 거시영역의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예측불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아인슈타인(A. Einstein)과 하이젠베르크(W. Heisenberg)에 의해 카오스이론이 20세기 초 미시영역에도 적용되면서 카오스는 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결정된 시스템이나 과정의 붕괴를 뜻한다. 오늘날 카오스는 ‘시스템이 통제를 벗어난다’¹⁾는 뜻으로 정의된다.

철학사에서 카오스에 대한 연구가 깊이있게 연구된 적이 없는 이유는 그것과 대립하는 코스모스가 가치론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니체는 카오스에 주목한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니체에게 카오스는 부정적인 함의와 동시에 긍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양의적이라 할 수 있다.²⁾ 우선 ‘카오스’라는 용어는 ‘질서의 결핍’, 즉 형식과

1) ‘the system has gone out of control’; Peitgen, Richter, *The Beauty of Fractals*, 1986, 6쪽.

2) 니체의 카오스에 대한 개요는 W. Müller-Lauter, *Über Freiheit und Chaos. Nietzsche-Interpretationen II*, Berlin/New York 1999, 특히, 139-173쪽 Das Ganze als Chaos und das Chaos im Menschen장 참조; 이 주제와 관련해 국내 연구로는 원동훈, 「니체와 “불의 연금술” -융합모델로서의 “문화복합”과 “카오스

합법칙성, 법의 부재를 뜻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언어사용의 의미맥락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니체는 우주론과 존재론에서 세계에 대한 인간의 모든 규정, 인간동형적 세계관에 근거한 합목적성, 이성, 아름다움도 세계 그 자체의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변화에 종속된 인간의 투사로 간주하고 있다. 인식론에서는 형식이 없고 형성이 불가능한 ‘감각의 카오스’는 범주의 도식화를 통해 질서를 갖게 되고 인간학에서는 내면의 카오스가 강조되면서 전통철학에서 확고한 것으로 간주된 인간의 규정적이고 확정적인 본질이 거부된다.

이렇게 보면, 니체의 카오스에 대한 비판은 그의 철학적 관심인 우주론, 존재론, 인식론, 사회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논자가 주목하는 것은 카오스가 지닌 긍정적, 창조적 가능성이다. 카오스는 그 자체로 부정성을 함축하지만, 새로운 인간을 창출하기 위한 형성력의 전제로서 요청된다. 이 글은 니체의 카오스 개념을 창조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연구하기 위해 그것의 기술적(記述的)인 측면과 규범적인 의미를 구별하면서 카오스의 극복의 가능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카오스는 니체의 우주와 인간에 대한 역동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단서로서 ‘신의 죽음’으로 야기된 존재의 탈신화화, 탈인간화를 넘어 생성의 무목적성을 미학의 차원에서 새롭게 열어보이면서 무한한 생성을 통해 자기완성을 구현하는 철학적 긍정개념인 것이다.

2. 카오스에 대한 전통적 해석

카오스는 원래 ‘균열’, ‘빈공간’, ‘공기’의 개념과 연결되어 부정적인

모스” in: 『니체연구』 제 18권, 한국니체학회, 2010, 205-227쪽; 이진, 니체의 스피노자 수용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새로운 문헌학적 전거-“카오스 즉 자연 (Chaos sive natura)”의 구상-, 『니체연구』 제 25권, 한국니체학회, 2014, 195-221쪽 참고.

합의를 가졌고 무엇보다 모든 질서의 해체로 규정되면서 완전한 혼란, 혼잡으로 이해되었다.³⁾ 카오스를 근본적인 무질서와 형태가 없는 덩어리로 보는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부감이 니체의 철학을 암묵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분명하다. 고대신화에 카오스의 근거에 대한 우주론적인 표상이 처음 등장한다. 헤시오도스(Hesiod)에 따르면 만물의 생성 이전에 카오스는 안개와 어둠, 그리고 밤과 같이 모든 것이 뒤섞인 상태로 생명을 품은 원초적 물질이었다. 여기서 거대한 소용돌이(무질서한 운동)이 일어나면서 만물이 생겨나게 되었다. 소용돌이에서 알모양의 코스모스(질서)가 형성되면서 안쪽의 정신과 바깥쪽의 물질의 관계가 정해진다.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파네스(Phanes)가 빛으로서 온 우주를 비추게 되면서 우주질서의 힘은 에로스적 결합의 욕망과 동일시된다.⁴⁾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적 사유에서 카오스가 이미 창조적인 잠재력으로 고찰된다는 사실이다. 즉 질서가 생겨나고, 빛이 나오고, 삶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심연, 소멸, 삶에 적대적인 힘, 지하세계가 파악되는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근원과 심연이 명백해지는 상황’⁵⁾에서 카오스가 모든 질서에 앞선 상태라는 신화적 가정을 거부한다. 카오스가 코스모스를 잉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우주의 본질을 영원히 구성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기독교 신학에서 카오스의 개념은 구약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있지만, ‘무로부터의 창조’(creatio ex nihilo)라는 기독교의 가르침

3) Duden 1976, I, 457쪽; J. Prossliner(Hg), *Lexikon der Nietzsche-Zitate*, München 2000, 460쪽 참조.

4) Eliade, 1957, 1640쪽; J. Prossliner(Hg), 같은 곳 참조.

5) F. Nietzsche, FW 322; KSA 3. 552쪽; N 5[188]; KSA 8. 93쪽; 니체 저서의 인용은 다음 두 가지를 병행하되 통일성을 위해 KGW를 주로 인용하며 개별적인 저서의 약기들은 일반적인 학계의 관례에 따라 표기한다. Friedrich Nietzsche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Hg.) G. Colli und M. Montinari, Berlin/New York 1967ff. (=KGW);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Hg.) G. Colli und M. Montinari, Berlin/ New York 1980 (= KSA).

6) F. Nietzsche, N 11[157]; KSA 9, 502쪽.

에 비추어볼 때, 그것의 우주론적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어렵다.⁷⁾ 왜냐하면, 카오스 개념은 창조론뿐만 아니라 전능한 창조주인 초월적인 신의 개념과 엄밀하게 모순되기 때문이다. 비록 종말론적인 고찰에서 지옥의 관념이 카오스적 심연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이러한 전통에서 사용된 카오스 개념이 니체의 사유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카오스 개념과 관련해 니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는 아낙사고라스(Anaxagoras)다. 철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카오스 개념은 소크라테스 이전에 아낙사고라스에게 주된 관심이었다. 아낙사고라스의 주장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초에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지성이 나왔고 질서를 창조하였다.’ 여기서 지성 또는 정신으로 옮길 수 있는 희랍어를 음역한 누스(Nous)가 혼란스러운 재료의 덩어리인 카오스에서 세계를 창조했다. 니체는 초기저서에서 카오스의 개념을 대부분 아낙사고라스와 연결지어 사유한다. 비록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카오스 개념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지만, 그것의 부정성에 대한 규정은 ‘질서없는 덩어리’로 정의한 플라톤의 사유에서 드러난다.⁸⁾ ‘비규정, 무형태, 무질서’로서의 카오스에 대한 거부감은 스토아학파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는데 오늘날 일상적 담론에서도 보편화되었다.

그러나 철학사에서 카오스를 배제하려는 견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카오스를 비규정적이고, 형태가 없는 물질로 보는 부정적인 시각과는 정반대의 입장은 파라켈수스(Paracelsus)와 뵘메(J. Böhme)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신 안에서 근원(Urgrund)은 무근거(Ungrund)이기 때문에, 인간의 반성을 통해 파악될 수 없고, 메타포를 통해서만 기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카오스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은 셸링(F. Schelling)에서 발견되는데, 그가 앞의 두 학자의 이론을 신뢰했기 때문이다.¹⁰⁾ 니체의

7) H. Kuhn 1958, 1015쪽; J. Prossliner(Hg), 앞의 곳 참조.

8) Platon, *Timaios* 30a.

9) J. Prossliner(Hg), *Lexikon der Nietzsche-Zitate*, München 2000, 461쪽.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철학자들의 카오스 긍정론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3. 우주론과 존재론에서의 카오스

니체는 아낙사고라스의 우주론을 받아들여 세계의 근본특징을 카오스로 규정하는데 동의한다. ‘세계의 전체특징을 카오스’로 이해하는 니체의 우주론과 존재론을 이해하는 단초가 바로 아낙사고라스의 생성론이다. 아낙사고라스에 따르면 카오스는 누스(Nous)가 아직 ‘사물의 종자들’(Materien-Körner)에 작용하지 않는 시기를 일컫는다.¹¹⁾ “아낙사고라스는 소위 모든 생성과 변화, 영원한 실체와 그 부분들의 모든 전이와 전환의 근원지로서 태고 시대의 최초의 운동계기를 가정해도 되었다... 아무런 시간이 존재했고, 저 물질들의 상태가 존재했다—짧은 기간 동안이든 아니면 긴 기간 동안이든, 정신이 이 물질들에 아직 작용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던 상태가 있었다. 이것은 아낙사고라스적 혼돈의 시기이다.”¹²⁾

따라서 카오스는 ‘기본-존재’가 규칙없이 존재하는 혼란의 상태인 셈이다. 그러나 아낙사고라스의 카오스개념은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기에는 불명료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이지 못하다고 니체가 비판한다. 아낙사고라스의 카오스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까닭은 니체가 아낙사고라스를 생성(Werden)의 철학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낙사고라스가 생각해낸 모든 기본-존재의 상태가 모든 운동 전에 있었다는 사실이 필연적으로 모든 ‘사물의 씨앗’의 절대적인 결합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곧, 운동이 누스가 작동한 이후에 시작했다면, 누스 이전의 카오스

10) 같은 곳.

11) F. Nietzsche, PHG 15; KGW III/2, 354쪽.

12) 같은 곳.

를 운동으로 필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낙사고라스적 혼돈은 곧 바로 명료하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이것을 파악하려면, 우리는 이른바 생성에 관한 이 철학자의 표상을 이해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운동이 있기 전의 모든 상이한 종류의 기본적인-존재들은 반드시 모든 ‘사물의 종자들’의 절대적 혼합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표현이 말해주듯이 아낙사고라스는 이 혼합을 가장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뒤섞인 상태로 상상했다. 그것은 모든 기본적인-존재들이 절구 안에서처럼 잘게 부서지고 먼지같은 원자들로 분해되어서, 종자들을 뒤섞은 통과 같은 저 혼돈 속에서 이제 서로 뒤섞일 수 있는 것과 같았다. 사람들은 이러한 혼돈의 개념이 필연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존재의 우연적인 상태만을 가정할 뿐이지 이 존재들이 무한히 분할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규칙없이 나란히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어떤 혼합도 필요하지 않은데, 철저한 혼합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¹³⁾

아낙사고라스처럼 스스로 완전한 혼돈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상상했을 때, 모든 기본-존재가 절구의 먼지와 같은 원자처럼 해체된 상태에서 필연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존재의 임의적 우연성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 분할자를 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는 혼돈만 있을 뿐 다른 방식의 혼돈이나 전체의 혼돈도 있을 수 없다. 니체는 아낙사고라스가 경험적으로 주어진 생성에 대한 자신의 파악을 통해 혼돈에 대한 사유를 ‘생성에 대한 최고의 두드러진 명제’로 만들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¹⁴⁾

니체는 아낙사고라스를 생성의 철학자로 이해하면서, 정신이 개입한 운동 이전에는 필연성이 없고 운동이 개입한 무한분할적인 혼돈이 없으

13) F. Nietzsche, PHG 15; KGW III/2, 354-355쪽.

14) 같은 곳.

며 생성만이 존재한다는 점을 수용한다. 니체가 아낙사고라스에 반대한 쟁점은 카오스와 코스모스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인 실체적 규정이다. 카오스가 처음에 있고, 나중에 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영원히 카오스의 순환만을 반복하면서 돌고 도는 것이다. 카오스가 질서에 앞선 상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영원하다는 사실은 질서를 목적으로 한 카오스가 아니라, 질서와 무관한 카오스 자체를 생성의 관점에서 ‘영원한 반복’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순환운동에 대한 잘못된 유비에 따라 이 순환법칙을 거쳐 생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최초로 혼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차츰 더 조화로운 운동이 생겨났으며, 마지막에 완전하고 원형인 모든 힘의 운동이 생겨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은 영원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약 힘의 혼돈 상태가 있다면 그것은 혼돈 역시 영원한 것이며, 모든 원에서 회귀하는 것이다. 순환은 본래의 법칙이다. 마치 힘의 덩어리가 본래의 법칙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에는 예외도 없고 위반도 없다. 모든 생성은 순환과 힘의 덩어리 내부에서 일어난다.¹⁵⁾

논자가 ‘완전한 무한성’ 개념을 비판하자면 완전성과 무한성 개념은 서로 모순된다. 완전성은 유한성을 전제하며 무한성은 미완전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한계(점)이 규정되어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고 한계를 열어두면 무한성의 계열에서는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무한성 개념은 논리적인 모순인 것이다. 니체는 코스모스가 함의하는 질서, 조화, 완전성의 개념을 거부하는 이유는 세계를 끊임없는 순환으로 보면서 그것에 의도적 노력이나 목적을 부여하지 않고, 이성이나 비이성을 생성의 술어로 덧붙이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성과 비이성은 생성에 해당하는 적합한 술어가 아니다.

15) F. Nietzsche, N 11[157]; KGW V/2, 400쪽.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니체의 카오스 개념은 철학적 사유의 초기 단계에서 ‘누스’가 개입하기 이전의 시기로 파악하는 아낙사고라스의 해석을 기본적으로 따른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무엇보다 아낙사고라스에 의해 받아들여진 스스로 완전히 활동하는 정신(vouç)을 가정한 운동개념이다. 누스가 개입하기 이전이 카오스의 기간에서 카오스 개념을 “생성에 대한 최고의 두드러진 명제”¹⁶⁾로 도출하면서 “모든 생성”의 조건과 “이것으로 진행되는 것”의 조건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 안에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¹⁷⁾ 그러나 니체에게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있다’는 사실은 어떤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모든 생성과 운동의 전제조건을 말한다. 운동은 목적을 향한 누스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주적 힘의 무한한 반복이다. 이것은 누스와 같은 어떤 하나의 실체가 우세하여 주도적인 운동이 일어나는 통상적인 생성의 의미가 아니다. 생성을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앞선 모든 전제로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근원상태가 “동일성(Gleichheit)으로 생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험은 동일한 것은 항상 동일하지 않은 것에서 생겨나고 계속 움직인다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이다.”¹⁸⁾ 생성은 본질적인 것으로 근원적인 비동일성(Ungleichheit)을 전제한다. 따라서 다양한 실체의 혼돈은 사물과 시간, 무엇보다 생성과 운동을 구성하는 가장 오래된 형식이다. 니체는 계속되는 논쟁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이러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등장할 수 있는가? 니체가 이와 함께 명백하게 인정하는 것은 혼돈적 혼합에서 생성이 가능하기 위해 정신(vouç)에 의해 야기된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인격신적인 기적과 의인관적인 목적과 유용성을 배제하고 분열과 분할을 통합하면 결국 정신은 ‘자기운동’(Selbstbewegung)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한다.¹⁹⁾

16) F. Nietzsche, PHG 16; KGW III/2, 355쪽.

17) F. Nietzsche, PHG 16; KGW III/2, 356쪽.

18) 같은 곳.

니체는 카오스에 대한 계속된 사유의 전개에서 “이러한 운동에 대한 목적론적인 해석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²⁰⁾ 전통형이상학에서 중요한 두 가지 물음은 ‘사물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목적인 *causa finalis*)와 ‘사물은 무엇으로 인해 존재하는가’(작용인 *causa efficiens*)인데, 아낙사고라스는 작용인의 차원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정신을 끌어들었다는 것이다.²¹⁾ 카오스의 존재론적인 우선성이 목적론적으로 파악된 누스(*vouç*)의 경우에 반드시 부정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운동을 위한 출발점을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²²⁾ 만약 운동의 목적이 누스에 의해 규정된다면, 운동의 결여로서의 혼돈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아낙사고라스는 목적론에서 파생되는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의’와 ‘자유의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어린아이의 놀이나 예술가의 예술충동과 같은 무목적적인 것으로 생성을 이해한다. 아낙사고라스가 “높이 평가하는 정신의 특성은 바로 자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즉 결정되지 않고 무계약적으로 또 어떤 원인과 목적에 의해서도 인도되지 않고 작용할 수 있는 특성”이다.²³⁾ 이러한 아낙사고라스의 해석은 나중에 니체의 형이상학 비판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존재의 존재론적 우선성의 거절, 초월적인 통일성의 거절과 원인과 궁극성의 부정은 생성 자체의 긍정으로 발전한다.

『즐거운 지식』에서 니체는 ‘유기적으로 생각된 조화로운’ 세계관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세계의 전체-특징은 [...] 모든 것에서 카오스의 영원성”이기 때문이다.²⁴⁾ 아낙사고라스와 반대로 니체에게 카오스는 코스모스에 앞서는 어떤 것이 아니며 신비적인 우주론에서 발견하는, 창조에 앞

19) F. Nietzsche, PHG 17; KGW III/2, 359쪽.

20) F. Nietzsche, PHG 19; KGW III/2, 365쪽.

21) 같은 곳.

22) F. Nietzsche, PHG 19; KGW III/2, 366쪽.

23) 같은 곳.

24) F. Nietzsche, FW 109; KGW V/2, 146쪽.

서는 근원도 아니다. 카오스에서 생겨나는 조화의 가능성을 거부하는 니체의 카오스에 대한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가정된 질서잡힌 코스모스, 예를 들어, 신에 의해 계획된 이상적인 세계를 해체한다. 카오스 개념을 통해 세계가 인간동형적으로 질서잡혔다는 잘못된 사유의 가면을 벗김으로써 이성적인 것, 자기보존 충동, 규칙성, 합법성, 목적지향성, 그와 함께 영원히 지속되는 실체, 질서, 형식, 아름다움, 지혜와 인간이 미적인 것으로 부르는 것이 사라진다. 모든 것은 탈신화화될 뿐만 아니라, 탈인간화된다. 카오스로서의 전체는 관계하는 것의 의미 전체가 아니다. 즉, 전체로서의 세계는 ‘조직가능한 카오스’(organisierbares Chaos)가 아니기 때문에²⁵⁾ “존재자 그 자체는 더 이상 고정될 수 없다.”²⁶⁾ 이렇게 세계전체를 규정하는 카오스를 “예외없는 성격”(durchgängigen Charakter)으로 특징짓는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의 “필연성”이다.²⁷⁾ 이러한 니체의 사유를 따라 하이데거는 “세계카오스는 그 자체로 필연성 안에 있다”(das Weltchaos ist in sich die Notwendigkeit)²⁸⁾라고 서술한다. 필연성을 암시하는 카오스는 외적인, 초월적인 특정한 최종의 인과적 필연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론적 합법칙성을 말한다.²⁹⁾ 모든 일어난은 모든 힘의 위상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필연적 결과이다.

카오스는 순환운동에 앞서는 어떤 것으로 생각되어선 안되고 모든 목적성의 배제로서의 ‘모든 것의 카오스’는 순환의 사유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비합리적 필연성’을 갖는다. 원환적 회귀는 그것의 완성에서 내적인, 스스로 자기-구성적인, 그러나 그 안에 ‘무자비하고 절대적인 힘의

25) W. Müller-Lauter, *Über Freiheit und Chaos. Nietzsche-Interpretationen II*. Berlin/New York, 1999, 141, 148쪽.

26) W. Müller-Lauter, *Über Werden und Wille zur Macht. Nietzsche-Interpretationen I*. Berlin/New York, 1999, 89쪽.

27) M. Heidegger, *Nietzsche I*, Pfullingen, 1961, 354쪽.

28) M. Heidegger, 같은 책, 355쪽.

29) F. Nietzsche, N 9 [91]; KSA 12, 386쪽; KGW VIII/2, 50쪽.

과정의 필연성, 즉 어떤 상태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작용-합리적인-넘어감을 암시한다.³⁰⁾

정리하자면, 아낙사고라스의 비판에서 시작된 니체의 카오스적 우주론과 존재론은 생성의 필연성을 영원회귀라는 사유로 통합함으로써 인간학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곧 우주에 대한 기술적인 태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에 대한 규범적 윤리가 카오스의 우연성과 영원회귀의 필연성의 고리에서 함께 사유되고 있는 것이다. 카오스에 대한 존재론에서 인간학으로 넘어올 때 인간성에 근거한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가치의 전환이 시도되는 것이다.

4. 인간학에서의 카오스 개념

카오스 개념이 우주와 존재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인간 자신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면 인간의 본성은 카오스와 어떤 관련을 맺는 것인가? 뮐러라우터(Müller-Lauter)에 따르면, 인간은 통일성이 없는 세계의 전체(das Chaos des Alles)와는 대조로 세계 안에서의 전체성이다. 이것은 기껏해야 잠시 시간에 따라 성장하는 전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 불안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결합이다. 우리는 조직된 카오스의 한 조각이다.³¹⁾

니체에 따르면 우주는 카오스이며 인간도 그 카오스의 부분이다. 자신의 본성을 하늘의 원형궤도와 같이 규칙적인 코스모스로 인식하는 자는 ‘심오한 사상가가 아니다.’ 오히려 ‘무한한 우주공간’을 보듯이 자신의 존재의 심연인 ‘카오스와 미로’에 이르려는 사람이 오히려 더 현명하다.³²⁾

30) G. Abel, *Nietzsche. Die Dynamik der Willen zur Macht und die ewige Wiederkehr*, Berlin, 1984, 442쪽.

31) W. Müller-Lauter, *Über Freiheit und Chaos. Nietzsche-Interpretationen II*. Berlin/New York, 1999, 144쪽.

32) F. Nietzsche, FW 322; KGW V/2, 232쪽; 비유-자신의 내면에서 모든 별이 원형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사상가는 가장 심오한 사상가가 아니다. 무한한 우주공간

인간의 본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이성은 가장 현명한 자에게조차도 예외이다. 카오스와 필연성과 별들의 소용돌이-그것이 규칙이다.”³³⁾ 그렇다면 ‘운명의 한 조각’으로서 인간은 목적없이 발산하는 힘의 의지가 만들어내는 우연한 사건의 ‘윤투’(Reigen)에 속한다. ‘우리는 주문할 수 없지만 동시에 다시 고정하고, 경험하고, 말하고, 생각해야만 하면서 자신을 자기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다.’³⁴⁾

카오스는 인식론의 측면에서 모든 객관성의 요구를 제거한 결과다. ‘신의 죽음’에 따른 참된 세계의 소멸과 실체의 해체는 사유하는 주체(Ich)라는 허구를 사라지게 했고, 그와 함께 참된 유일한 객관성도 없어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석에서 관점주의적 다양성이 허용되면서 세계는 무한한 의미를 지닌 형식의 출현으로서의 카오스가 된다.

뮐러 라우터에 따르면 칸트의 인식이론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 니체의 카오스 개념의 전(前)역사에 속한다. 다윈식의 생존경쟁을 위한 도구의 성격을 강조하는 등 인식의 선형적인 조건에 대한 생물학화가 강하게 강조될 때 ‘시간적 확고함’은 사라진다. 칸트와 니체의 인식론적인 입장에는 유사성이 있을 수 있지만, 차이점이라면 니체의 오성개념의 도식이 칸트와 같은 순수한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에서 ‘기만하는 형식’로서 스스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세계와 대면할 때 “감각인상의 불명료함과 카오스는 동시에 논리화된다. [...] 이렇게 형성된 현상계의 반대는 참된 세계가 아니라, 형식이 없고-형성될 수 없는 감각-카오스의 세계다. 즉, 다른 종류의 현상세계, 우리에게 인식될 수 없는

을 바라보듯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은하수를 자신 안에 간직한 사람은 모든 은하수들이 얼마나 불규칙한가를 안다. 이들은 현존재의 카오스와 미로에 이르기까지 헤치고 들어간다.

33) F. Nietzsche, N 4[5]; KGW VII/1, 112쪽; “이성은 가장 현명한 자에게조차도 예외이다. 카오스와 필연성과 별들의 소용돌이-그것이 규칙이다.”

34) W. Müller-Lauter, *Über Freiheit und Chaos. Nietzsche-Interpretationen II*. Berlin/New York, 1999, 148쪽.

세계다.”³⁵⁾ 우리는 도식화를 통해 카오스에 많은 규칙성과 형식을 우리의 “실천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부여할 뿐이다.³⁶⁾ 카오스의 도식화 없인 삶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표상의 근원적인 카오스”에서 시작된 ‘논리의 탄생’을 우리를 압박하는 생존의 필요나 생존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이해해선 안되고, 그러한 카오스를 재구성하는 ‘창조가 선택과 선택된 것의 완성’이 ‘모든 의지·행위에서 결정적인 것’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³⁷⁾ 외부의 감각상들이 우연히 서로 혼합되면서 작용하는 카오스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형성하도록 자극한다.³⁸⁾ 카오스가 없으면 어떤 창조도 없다. 카오스가 우리 안의 질서잡힌 세계로 파고들어오면 ... 우리의 형성력은 점점 더 강하게 도전받는다.³⁹⁾ 이러한 카오스는 폐기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존재를 창조하기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인간이 자신 안에 카오스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은 아니다. 카오스는 앞서 통일성으로 조직된 것으로부터의 분리(Disgregation)로 존재하는데,⁴⁰⁾ 특히 19세기의 ‘의지의 분리’라는 의미에서 인간은 ‘여러 겹의 인간’(der vielfache Mensch)이다.⁴¹⁾ 이것은 ‘원자적 혼돈의 시대’⁴²⁾로 불렸던 19세기에 니체 자신이 ‘원자적’이라고 느꼈던 사회적 맥락의 반영이다.⁴³⁾ ‘허무주의

35) F. Nietzsche, N 9 [106]; KGW VIII/2, 52-53쪽.

36) F. Nietzsche, N 14 [152]; KGW VIII/3, 125쪽.

37) F. Nietzsche, N 24 [5]; KGW VII/1, 687쪽.

38) F. Nietzsche, N 11 [121]; KGW V/2, 382쪽.

39) F. Nietzsche, N 5 [188]; KGW IV/1, 169쪽.

40) W. Müller-Lauter, *Über Freiheit und Chaos. Nietzsche-Interpretationen II*. Berlin/New York, 1999, 153쪽.

41) F. Nietzsche, N 9[119]; VIII/2, 68쪽; 오늘날...교양인이 결여되어 있다. 위대한 종합적인 인간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는 인간 안에서 다양한 힘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단호하게 매어져 있는 종합적인 인간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인간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주어졌던 것 중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혼돈상태이다.

42) F. Nietzsche, ÜB III 4; KSA 1, 367쪽.

적 한숨,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무지, 피로의 본능⁴⁴⁾은 데카당스와 니힐리즘으로 각인된 시대적 혼란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카오스의 시대인 ‘근대를 지배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평가다.’ 근대인의 지식은 배고픔이 없는 과잉에서 불필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더 이상 변형을 추동하는 외부의 동기로서가 아니라 어떤 혼란스러운 내부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⁴⁵⁾ 데카당스라는 이러한 근대적 상황을 니체는 우리의 근대의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의 예술, 특히 바그너의 퇴락에서도 발견한다.

그렇다면 카오스는 니체의 인간이해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인가? 인간학과 관련해 카오스의 부정적인 함의는 첫째는 도덕적이고 미학적인 인간성의 결핍이고, 둘째는 질서와, 미, 지혜의 결핍이다. “이 세계의 전체적 성격은 영원한 카오스다.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질서, 조직구조, 형식, 미, 지혜, 그 밖에 우리가 심미적 인간성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다.”⁴⁶⁾ 셋째는 물질, 공간, 몸, 영혼, 신, 인간의 부정이고,⁴⁷⁾ 넷째는 카오스를 거짓으로 여기고 코스모스를 진실로 여기는 도덕적 판단의 부정이다. 다시 말해 카오스를 사물의 거짓된 존재로 고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한 인간을 질서와 원칙의 인간으로 간주하는 것도 도덕적인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⁴⁸⁾ 다섯 번째는 자기조직화의 원리인 유기체로서의 세계의

43) F. Nietzsche, Brief an W. Vischer 27.5.1871; KSB 3, 195쪽.

44) F. Nietzsche, GD Streifzüge 50; KSA 6, 152쪽.

45) F. Nietzsche, ÜB II 4, KSA 1, 272쪽.

46) F. Nietzsche, FW 108; KGW V/2, 146쪽.

47) F. Nietzsche, N 21[3]; KGW V/2, 584쪽; ‘물질도, 공간도(떨어져 있는 거리 속에서의 어떤 행위(actio in distance도), 형식도, 몸과 영혼도 없다. “창조”도 없고, “전지(全知)”도 없다-신도 없으며: 그래서 물론 인간도 없다. 혼돈 혹은 자연(Chaos sive Natura); F. Nietzsche, N 11 [197]; KGW V/2, 417쪽. 혼돈 혹은 자연-자연의 탈인간화에 대하여.

48) F. Nietzsche, N 40 [9]; KGW VII/3, 364쪽; 근본적인 선입견은 질서, 조망, 체

부정이다. 니체는 생성의 술어로 기계적인 것과 유기체적 것인 것을 덧 붙이는 것을 모두 거부한다. 다섯 가지로 요약한 니체의 인간학의 관점에서 본 카오스의 부정성은 그럼에도 필연성의 부재나 결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영원한 자연의 필연성을 보여준다. 모든 목적론의 거부에 따른 혼란은 인간성을 구성하는 윤리, 미, 인식을 배제하지만 순환론의 사유 안에서 여전히 필연성의 의미를 갖는다.⁴⁹⁾

덧붙여, 정서와 관련해 쾌락과 고통에 대한 니체의 심리학적 견해는 분산과 집중, 속도와 조화, 균형과 조화 등의 범주로 카오스가 인간의 감정에 어떻게 관계하는지 밝혀낸다. ‘소위 영혼의 고통이라고 불리는 고상한 고통은’ 낮은 단계의 고통으로 느리고 분산되어 있지만, ‘많은 정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서로에게 돌진’할 때, ‘갑작스러운 혼란과 무질서가 의식에게는 물리적 고통’이 된다. 고통은 ‘충동에 동화된 여러 표상들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동원되어 적대적으로 대치되는 경우다. 그러나 그 반대로 ‘표상들은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지성에 의해 쾌감으로 지각되는 것이다.’⁵⁰⁾ 쾌락과 고통은 즉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적으로 매개된다는 점에서 변증법적인 성격을 갖는다. 외부세계에서 촉발된 혼돈이 지각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면 고통이 되지만, 그것이 지적인 활동에 의해 종합되면 쾌락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계적인 것이 사물의 참된 존재에 부착되어야만 하며, 반대로 무질서, 혼돈적인 것,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단지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게 인식된 세계로 드러난다는 - 요약하면, 하나의 오류라는 것이다. 도덕적인 선입견은,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간이 질서와 원칙의 인간이며, 전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고 지나치게 정확한 인간이 되곤 한다는 사실에서 끄집어낸 것이다.

49) F. Nietzsche, N 11 [74]; KGW VIII/2, 279쪽. 세계는 결코 유기체가 아니라 혼돈 상태라는 것; N 11 [225]; KGW V/2, 426쪽; 모든 목적 활동의 배제로서의 ‘우주의 혼란’은 순환론의 사유와 모순이 아니다. 순환론적 사유는 어떤 형식적, 윤리적, 미적 고려도 없는 비이성적인 필연성이기 때문이다. 가장 세부적인 것에서 전체에 있어서도 의도는 없다.

50) F. Nietzsche, N 11 [314]; KGW V/2, 460쪽.

쾌락은 외부의 혼돈에 촉발된 정서의 불규칙성이 지성에 의해 조화를 이룬 감정이다.

5. 카오스의 극복

니체는 카오스의 재구성의 문제를 규범적인 의미에서 고려하는데, 카오스가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형성력(Gestaltungskraft)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창조성을 갖기 위해 우리 안에 계속되는 카오스에 질서를 부여하는 지적인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우리의 정신 속에서 혼돈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개념, 형상, 지각들은 우연히 서로 함께 연결되고, 우연히 뒤죽박죽된다. 이때 정신이 보고 깜짝 놀라는 이웃관계가 형성된다: 정신은 유사한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땐 정신은 취향을 지각하고, 경우에 따라 예술이 되거나, 지식이 되는 두 가지에 매달려 작업을 한다.여기가 바로 새로운 무엇이 조합되고, 적어도 거기까지는 인간의 눈이 다다른 세계의 마지막 부분이 된다. 결국 그것은 가장 미세한 새로운 화학결합이 되기도 할 것인데, 이 화학결합은 실제로 세계의 변화 속에서는 아직 자신의 동류의 것을 가지지 못한 상태다.⁵¹⁾

무의미와 가치상실을 뜻하는 카오스의 극복은 우리 시대의 과제이다. 카오스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면 자극을 받은 우리의 존재는 더욱 강해진다. “현존재의 가치에 대한 판단은 카오스에서 가장 강력한 긴장의 최고의 결과다.”⁵²⁾ 우연적인 카오스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수 없고 인간의 지적 능력에 의해 유사성과 동질성으로 구성될 때만 의미가 획득된다. 즉 인간에 의해 사유됨으로써 조직된, 만들어진 카오스의 세계가

51) F. Nietzsche, N 11 [121]; KGW V/2, 382쪽.

52) F. Nietzsche, N 5 [188]; KGW IV/1, 169쪽.

의미의 세계다. 니체의 인식은 칸트적인 의미에서의 구성이 아니라 창조로서 ‘카오스에 우리의 실천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만큼 규칙과 형식을 놓는 것이다.’

인간은 카오스라는 가장 무시무시한 것에 가장 가까이 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에 ‘너는 마땅히...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할 수 없기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나 제거할 수 없는 카오스는 역설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위한 훌륭한 재료가 된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체화된 것’(동화된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학문을 통해 개념화함으로써 모든 자연을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사유가능하게 만든 다음, 궁극적으로 초인을 창조하게 된다. 창조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혈연만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우리는 기껏해야 ‘사유된 존재’를 사랑한다. 하나의 작품과 어린아이에 대해 사랑은 명령받을 필요가 없다. 초인에 대한 편견이다.”⁵³⁾

인간은 내부에 ‘카오스’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을 의미있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는 점에서 ‘인간 안에는 피조물과 창조자가 일체가 되어 있다.’⁵⁴⁾ 따라서 카오스는 지금 더 강한 초인, 위대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근거⁵⁵⁾일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간이 자신을 형성하기 위한 힘

53) F. Nietzsche, N 4 [80]; KGW VII/1, 139쪽; 카오스가 가장 가까이에 있고, 모든 것 흐른다...우리는 우리가 섭취, 동화한 모든 것을 물질로 갖고 있다. 이러한 물질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학문을 통해)...우리는 전체 자연을 우리의 관점에서 사유하고 사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후, 초인을 창조한다. 우리는 단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혈연만 사랑할 수 있을 뿐이다. 작품과 아이에 대한 사랑은 명령받을 필요가 없다.

54) F. Nietzsche, JGB 225; KGW VI/2, 167쪽; 인간 안에는 피조물과 창조자가 일체가 되어 있다: 인간 안에는 소재, 파편, 과잉, 점토, 오물, 무의미, 혼돈이 있다. 그러나 또한 인간 안에는 창조자, 형성자, 해머의 냉혹함, 관망자적인 신성함과 제7일도 있다. 그대들은 이 대립을 이해하는가? 그대의 동정이란 ‘인간 안에 있는 피조물’에 해당되며, 형성되고 부서지고, 단련되고 찢기고 불태워지고 달구어지고 정련되어야만 하는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55) F. Nietzsche, Z I Vorrede 5, KSA 4. 19쪽; Ich sage euch: man muss noch

의 조건이 되기도 한다.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카오스를 보존해야만 한다. 앞으로 올 자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형성하고자 한다!”⁵⁶⁾

그렇다면, 니체는 카오스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한 것인가? 니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 카오스의 조직화는 ‘우리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실제로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 이상은 바로 그리스의 문화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혼돈을 조직하고 ‘교육’에 대한 모든 두려움을 버리고 진지해지는 것: 너 자신을 알라(gnothi sauton)를 요구하는 것. 골똘히 많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욕구인지 실제적으로 알기 위해서다. 여기서부터 생소한 것은 과감히 옆으로 버린다. 자신을 우리 외부에 적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부터 성장하는 것이다. 예술과 종교는 혼돈의 조직에 적합하다: 후자는 인간에게 사랑을 선사하고, 전자는 현존재에게 사랑을 선사한다.⁵⁷⁾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격언처럼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있으며, 그러한 자기인식에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진다. 카오스의 조직은 인식을 통한 지적 활동을 전제하지만, 또한 과학, 예술, 종교 역시 카오스를 의미있게 변형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 교육은 외부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카오스의 자기조직이다.⁵⁸⁾ 이로써 인간은 높은 이상이 자기의식 깊은 곳에서 성장하여 자기에게 명령을 하면서 목표, 목적, 의미 등 지배적인 과제에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Chaos in sich haben, um einen tanzenden Stern gebären zu können. Ich sage euch: ihr habt noch Chaos in euch.

56) F. Nietzsche, N 4 [76]; KGW VII/1, 137쪽.

57) F. Nietzsche, N 29 [192]; KGW III/4, 316쪽.

58) F. Nietzsche, ÜB II III/1, 268쪽; N 24 [18]; KGW VII/1, 698쪽.

게 한다. 이때 ‘가치전도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니체에게 “서로를 교란시켜서도 파괴시켜서도 안되는 능력들의 대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능력들의 서열: 거리: 적대시키지 않으면서도 분리하는 기술: 그 무엇도 섞지 않고, 그 무엇도 화해시키지 않음: 거대한 다수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오스와는 반대되는 것-이것이 내 본능의 전제조건이자, 오랫동안의 비밀스러운 작업이자 수완”⁵⁹⁾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니체가 예고한 가치 전환에서, 새로운 목표인 초인의 창조에서 ‘카오스와 반대’되는 우리의 무시무시한 ‘능력의 다수성’을 파괴하지 않고 ‘위계와 거리’도 적대시키지 않아야 된다. 자신과 대립하는 것을 자신의 전체성과 결합함으로써 ‘위대한 종합적인 인간’이 되려면 다양한 힘을 하나의 목적에 주저하지 않고 ‘굴레’(Joch)처럼 묶을 수 있어야 한다.⁶⁰⁾ ‘위대한 종합적 인간’은 내면의 카오스를 스스로 극복하면서 융합하는 ‘괴테’와 같은 인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테가 바로 ‘다층적 인간’(der vielfache Mensch)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것처럼 가치입법자의 권력감정은 밖으로 향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약한 개체는 자신의 권력감정을 안으로 향한다. 전자에서 탄생하는 위대한 인간을 뜻하는 초인의 유형은 바로 괴테, 니콜레옹, 누구보다 예술가인 바그너다.

예술가의 위대함은 그가 야기하는 ‘아름다운 감정들’에 의해 측정되지 않[으며] 위대한 열정과 공통점을 갖는다. 예술가의 위대함은

59) F. Nietzsche, EH 9; KGW VI/3, 292쪽.

60) F. Nietzsche, N 9[119]; VIII/2, 68쪽; 오늘날...교양인이 결여되어 있다. 위대한 종합적인 인간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는 인간 안에서 다양한 힘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단호하게 매어져 있는 종합적인 인간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인간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금까지 주어졌던 것 중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혼돈상태이다. 그러나 이 여러 종류의 인간이 형성하는 혼돈상태는 세계의 창조 이전의 혼돈상태가 아니라, 그것 배후의 혼돈상태를 보여준다.

그가 위대한 양식에 근접하는 정도, 위대한 양식에 대한 그의 능력 정도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다...인간 바로 그 모습인, 카오스를 지배하는 것; 자신의 카오스에게 형식이 되라고 강요하는 것: 형식으로 필연성이 되라는 것: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명료하게, 수학이 되라는 것; 법칙이 되라는 것; 이것이 여기서의 큰 야심인 것이다.⁶¹⁾

위대한 양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드물게 나타나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충만한 인식’처럼, 역사를 의미있게 만드는 동력을 이해함으로써 카오스가 상호작용할 때 은폐되고 맹목적인 모든 실존에서 이성적인 것이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⁶²⁾ 위대한 양식을 통해 삶에 형식을 부여하는 시도는 예술에서 필연적이다. 디오니소스적 예술가는 아직 형태가 되지 않은 의지의 카오스에 명령하고 그것에서 창조적인 순간에 하나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다.

디오니소스적 예술가는 현상하는 것의 본질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해야 한다. 그는 아직 형태를 이루지 않은 의지의 혼돈에 대해 명령하며, 창조의 계기가 있을 때면 언제나 이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세계뿐만 아니라 이미 현상으로 알려진 과거의 세계도 다시 창조할 수 있다. 후자의 의미에서 그는 비극적 음악가인 것이다.⁶³⁾

6. 나오는 말: 카오스모스의 철학

니체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 전체를 카오스로 규정한다. 우주가 원환 운동을 한다면 그것은 어떤 코스모스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필연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아낙사고라스와는 대조를 보인다. 카오

61) F. Nietzsche, N 14[561]; KGW VIII/3, 56쪽; W. Müller-Lauter, *Über Freiheit und Chaos. Nietzsche-Interpretationen II*, Berlin/New York, 1999, 152-156쪽.

62) F. Nietzsche, N 5[58] KGW IV/1, 133쪽.

63) F. Nietzsche, DW I; KGW III/2, 49쪽.

스의 개념은 감각의 덩어리와 다양성에 형식을 부여함으로써 인식가능한 것(intelligible)으로 만드는 칸트의 인식론과 구별된다. 카오스로서의 세계는 인식론의 차원에서 개념이라는 동일성의 원리에 의해 도식화되어야 부정적인 대상이다. 그러나 니체에 따르면 인간의 인식이 오류인 것은 감각의 측면에서 지양할 수 없는 제한성 때문에 참된 ‘본래의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

니체의 카오스 철학이 의미있는 분야는 해석학적인 차원이다. 무엇보다 카오스는 의미의 불확정성, 현존재의 다의성(Vieldeutigkeit der Daseins)을 뜻한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바로 의미의 카오스이기 때문이다. ‘고정된 의미’인 존재로서의 세계를 ‘해석학적 다양성’을 허용하는 ‘생성’의 성격으로 바꾸는데 하나만의 해석을 진리로 허용하는 신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 신의 죽음으로 야기된 세계해석과 존재해석의 변화는 탈신화화, 탈인간화를 통해 동일성에서 배제된 ‘불규칙적이고 모순된 운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한한 해석’(unendliche Interpretation)을 허용하게 된다.⁶⁴⁾ ‘모든 것은 거짓이다. 모든 것은 허용된다’는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니체의 관점주의는 특권화된 모든 해석을 거부한다. 니체는 인식 가능한 것과 인식불가능한 것이라는 이원론을 넘어 윤리학과 미학에서 카오스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시도한다. 니체의 사유에서 혼돈은 그 자체로서 창조성의 근원적인 힘이 된다. 니체가 ‘위대한 형식’을 통해 카오스를 조직하려는 의도는 들뢰즈(G. Deleuze)가 사용한 더 나은 표현인 ‘카오스모스’(chaosmos)로 이해될 수 있다. 카오스모스는 원래 조이스(J. Joyce)로부터 유래했는데,⁶⁵⁾ 에코(U. Eco)는 그것의 특징을 ‘개방성’(openness), ‘다수성’(multiplicity), ‘비결정성’(indeterminacy), ‘비연속성’(discontinuity)

64) F. Nietzsche, FW 374; KGW VI/2, 309쪽; Die Welt ist uns vielmehr noch einmal “unendlich” geworden: insofern wir die Möglichkeit nicht abweisen können, dass sie unendliche Interpretationen in sich schliesst.

65) J. Joyce, *Finnegans Wake*, New York: Penguin Books, 1976 참조.

네 가지로 특징짓는다.⁶⁶⁾

들뢰즈가 볼 때, 니체는 탈신학적 스피노자이기도 하다.⁶⁷⁾ 모든 실체가 단일한 실체인 신에서 유래한다는 스피노자는 “신 또는 자연”(Deus sive Natura [God or Nature])⁶⁸⁾이라는 명제를 견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니체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서 있다. 그렇지만, 스피노자와 마찬가지로 자연 이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실체는 자연적인 것이라는 인식에서 니체는 자연주의자이자 반이원론자다. 신의 죽음 이후 자연은 일치의 관점이 아닌 불일치의 영역에서, 하나가 아닌 다수적(multiple)인 것에서 파악된다. 니체의 카오스 개념은 철학사적으로 스피노자의 영향사와 들뢰즈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

‘카오스’의 구성의 필요성은 니체 미학의 두 가지 원리인 ‘디오니소스적인 것’(혼동)과 ‘아폴론적인 것’(질서)와 관련해 제기된다. 그리스인들은 카오스의 조직화를 아폴론적인 예술을 통해 시도했다. 순수한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흘러넘치는 창조력으로, 질서, 형식, 조화의 구조가 없는 무형식적 혼돈이다. 유기적으로 생산하는 힘에서 음악은 자신의 표현을 하는데, 개별적인 것이 해소되는 도취(Rausch)의 체험에서 모든 아폴론적인 것은 지양되면서 신비적인 하나됨의 느낌을 갖게 된다. 만약 그리스 비극예술에서 디오니소스적인 것만이 지배한다면, 그 결과는 카오스적인 것의 과잉이다. 아폴론적인 것이 카오스를 단순화, 조직화하는 계기로 등장

66) U. Eco, “The Poetics of the Open Work.” In: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emiotics of Tex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54, 58쪽.

67) G. Deleuze, *Difference and Repetition*. Trans. Paul Patt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40쪽 참고; R. Schacht, “The Nietzsche-Spinoza Problem: Spinoza as Precursor?” in: *Making Sense of Nietzsch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68) Spinoza, *Ethics*, in *Works of Spinoza*, vol. 2, trans. R. H. M. Elwes (New York: Dover), 1951, 188쪽, Will to Power 1062 참조.

하기 때문에 비극적인 것과 신화적인 것에 근거한 그리스 문화는 카오스에 대한 보호망을 아폴론적인 것으로 제공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얇은 가상’에 불과할 뿐이다.⁶⁹⁾ 그리스 비극예술은 생존의 무시무시함에 대한 보호망으로서 미적인 환상을 필요로 했고 아폴론적인 형식을 통한 디오니소스적인 것의 조화를 통해 삶의 유지가 가능했던 것이다.

니체의 카오스 철학은 세계를 미리 규정하는 의도나 목적을 부정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무한한 자기창조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춤추는 별을 낚기 위해 자신 안에 카오스를 가져야 된다’는 니체의 요구는 ‘혼돈에 대한 용기’(Mut zum Chaos)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⁷⁰⁾ ‘춤추는 별’은 카오스의 지양이 아니라 더 확장된 필연성으로서의 새로운 카오스의 탄생을 상징한다. 니체가 생성에서 목적이나 무를 제거한 이유는, “만약 생성이 존재나 무로 환원된다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⁷¹⁾ 즉 미리 규정하는 가치가 있다면 인간의 삶은 그 규정성과 한계 안에 갇혀 역동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삶의 완성이란 이미 정해진 한계 안에서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창조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생성의 철학자인 니체가 무목적성과 필연성을 카오스로 연결하는 개념은 놀이라는 미학적 사건이다. 니체의 ‘춤추는 별’은 인간 안의 소우주가 대우주인 하늘의 궤도를 도는 운동의 필연성을 받아들이지만, 정해진 정형화된 궤도만을 따르는 동일성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니체가 받아들이지 않는 목적론과 결정론은 그 자체로 종교적이며, 닫힌 체계에 근거하여 무시간적이고 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생성이 평정상태(코스모스)인 보편적 법칙에 지

69) F. Nietzsche, KSA 10, 562쪽; GT, KSA 1, 56쪽.

70) Arp 1939, 396쪽; H. Ottmann(Hg.), *Nietzsches Handbuch*, Stuttgart 2000, 487쪽 재인용.

71) F. Nietzsche, N 14 [188]; KGW VIII/3, 167쪽; Wenn das Werden in das Sein oder in's Nichts münden könnte, so müßte dieser Zustand erreicht sein. Aber er ist nicht erreicht.

배를 받아선 안된다. 니체는 카오스와 코스모스를 대립적 관계로 보지 않고, 카오스를 코스모스를 통해 완전히 지양하려고 하지 않으며, 카오스 그 자체를 필연적인 생성으로 긍정한다. 긍정의 이유는 이 우주가 카오스적인 힘에 의해 영원히 유지되고 반복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니체의 카오스 이론을 우주론, 존재론, 인식론, 미학 등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카오스의 긍정적인 함의를 ‘창조성’의 관점에서 고찰해보았다. 전통철학이 카오스에 대한 혐오 때문에 자신의 내면세계를 도식화, 단순화하여 그러한 혼돈에서 벗어나려고 했다면, 니체의 카오스 철학은 기존의 생성과 존재, 다수와 일자로 각인된 형이상학과 윤리학의 이분법적 틀을 넘어 철학적 사유를 영원회귀의 필연성으로 확장함으로써 인간의 자기완성, 자기창조의 과제를 ‘삶의 기예’(Lebenskunst)라는 미학적 의미에서 역동적으로 제시한다.

참고문헌

- 원동훈, 「니체와 “불의 연금술” -융합모델로서의 “문화복합”과 “카오스모스”」,
in: 『니체연구』 18권, 한국니체학회, 2010, 205-227쪽.
- 이진, 「니체의 스피노자 수용에 대한 관점들 그리고 새로운 문헌학적 전거
-“카오스 즉 자연(Chaos sive natura)”의 구상-」, 『니체연구』 제
25권, 한국니체학회, 2014, 195-221쪽.
- Abel, G., *Nietzsche. Die Dynamik der Willen zur Macht und die ewige
Wiederkehr*, Berlin, 1984.
- Deleuze, G., *Difference and Repetition*, translated by Paul Patton.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c1994.
- Eco, U., “The Poetics of the Open Work.” In: *The Role of the Reader:
Explorations in the Semiotics of Tex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79.
- Heidegger, M., *Nietzsche I*, Pfullingen, 1961.
- Joyce, J., *Finnegans Wake*, New York: Penguin Books, 1976.
- Müller-Lauter, W., *Über Freiheit und Chaos. Nietzsche-Interpretationen II*,
Berlin/New York, 1999.
- _____, *Über Werden und Wille zur Macht. Nietzsche-Interpretationen I*.
Berlin/New York, 1999.
- Ottmann, H.,(Hg.), *Nietzsches Handbuch*, Stuttgart 2000.
- Prossliner, J.,(Hg), *Lexikon der Nietzsche-Zitate*, München 2000.
- Schacht, R., “The Nietzsche-Spinoza Problem: Spinoza as Precursor?” in:
Making Sense of Nietzsch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5.
- Spinoza, *Ethics*, in *Works of Spinoza*, vol. 2, trans. R. H. M. Eiwes (New
York: Dover).

Nietzsche, F., *Werke. Kritische Gesamtausgabe*, G. Colli und M. Montinari (Hg.), Berlin / New York, 1967ff. (=KGW) ; Friedrich Nietzsche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in 15 Bänden, (Hg.) G. Colli und M. Montinari, Berlin/ New York 1980 (= KSA).

Nietzsche's Philosophy of chaos **— focused on human creativity—**

Kang Yong Soo (Korea Univ.)

Nietzsche's criticism of chaos is a very important subject in his philosophical interests of cosmology, ontology, epistemology, aesthetics, and social philosophy. Chaos implies negativity in itself, but is required as a premise of forming power to create a new human being.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chaos from various viewpoints by distinguishing Nietzsche's concept of chaos from its descriptive aspect and its normative meaning in order to newly study it in relation to creativity. Chaos is a clue to Nietzsche's universe and a dynamic world view of human beings as a clue to demythization and dehumanization of existence caused by 'Death of God'. Nietzsche's chaos philosophy beyond the dichotomy of metaphysics and ethics, is affirmative notion to open up a new dimension of aesthetics as the purpose of creation. By expanding philosophical thought into the inevitability of the eternal return, we dynamically present the task of human perfection and self-creation in the aesthetic sense of 'Lebenskunst' in social philosophy.

Key words: Chaos, Creativity, Kunst, Cosmology, Ontology

니체의 카오스 철학 / 강용수

강용수 E-mail: sternentanz@hanmail.net

투 고 일	2018년 04월 15일
심 사 일	2018년 04월 30일
계재확정	2018년 05월 22일